

# 광주 서구를 '최대 힘지' 부상...전·현직 의원만 4~5명 도전장

### 민주당, 김경만·양부남·천정배·최희용 등 '피말리는 4파전' 예고 비민주, 신당 양향자·현역 강은미, 재선 이정현, 진보당 등 격돌

내년 총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최대 협지이자 격전지로 광주 서구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 4당에 신당까지 최대 5개 정당이 맞붙는 데다 국회의원 출신만 최대 5명에 달해 '금벚지들의 혈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를 선거구엔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 원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4개 당에 지역구 현역인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신당 '한국의희망'까지 최대 5개 정당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또 다른 현역의원인 김경만(민주당 비례), 강은미(정의당 비례)에 '6선 출신' 천정배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까지 가세하면 전·현직 금벚지만 5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는 모두 9명. 이 중 4명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의원과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를 주도한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의 4파전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 7선 고지를 밟아 국회의장을 꿈꾸는 천 전 의원, '공고 출신 고검장' 신화를 쓴 진명계 양 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0%의 득표율을 올리며 지력을 과시한 최 전 대표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피말리는 공천 경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본선이라는 또 다른 산과 마주해야 한다. '경선이 곧 본선', '공천=당선'이라는 오랜 공식이 통하

는 다른 지역구와 달리 서구는 1차 경선 대전에 이어 2차 본선 대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비민주당 진영은 국민의힘 이정현, 하현식, 정의당 강은미, 진보당 김해정, 여기에 28일 창당하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등으로 압축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전 의원은 2012년 야권 전략공천지로 지정돼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후보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39.7%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나설 경우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세운 하현식(새남도미래발전연구위원과의 내부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의당 강 의원은 서구의원, 광주시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광주에서 유일한 진보당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진보당 주자는 김해경 풍암호



광주 서구를 출마 예상자들. 위쪽 왼쪽부터 가나다순으로 강은미, 김경만, 김해정, 양부남, 양향자, 아랫줄 이정현, 천정배, 최희용, 하현식.

수원형보전매립대 수질개선 대책위원장으로서 생활정치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역구 현역은 양 의원은 좋은정치·과학정치·생활정치와 세계 최초 블록체인 정당을 표방하며 28일 창당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서구는 광주·전

남 통틀어 가장 치열한 1, 2차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본선을 장담할 수 없는 유일한 선거구라는 말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상무2동, 화정3·4동, 금호1·2동, 서창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유권자 수는 14만5000여 명이다.



## 여수시의회, 오늘부터 제231회 임시회 개최

### 시정 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결정 등 안건 39건 처리 예정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28일부터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3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31일 및 9월 1일에는 시 정부를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영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여당,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무책임한 시위로 국민 죽어나"

### "반일 선동곡 변질된 죽창가 공연대"

국민의힘은 27일 야당과 야권 성향 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시위로 국민이 죽어나는 건 윤석열 정권도,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야권 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것을 두고 "집회의 시작은 어느새 반일 선동곡으로 변질된 '죽창가' 공연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것으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은 반일 프레임에 내세워 이재명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선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닌이 밝혀졌다"며 "무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태평양 국가를 향한 전쟁 선포'라 주장했다"고 다. 그는 "오염수 방류 직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원전 55기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토요일 집회를 함께

한 단체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주권 문제'라 했다. 똑같은 사안을 정권이 바뀌니 태도를 바꿔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죽창가"로 시작한 범국민대회에선 태평양 국가를 향한 전쟁 선포, 일본의 심부름꾼 운운하는 등 국민 불안과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혐오적 막말에 선동성 구호만이 난무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등 각종 괴담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거짓선동으로 몰들었던 시민단체들은 다시 때가 왔다는 듯 목숨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또다시 보여주지 마세요"라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마세요"라며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방류는 이미 시작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상 '방탄대오'를 위한 선전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광우병, 사드괴담 때처럼 지금의 괴담정치도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나,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선량한 어민, 수산업자들이 피눈물 속에 생계를 위협받은 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수산물 소비위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이라며 "길거리에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을 물론,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